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5

“우리도 함께 뛰다”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질주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힘찬 질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팀워크 다지고 신생팀 홍보 전국 대회 8강 위해 달린다

■ 남부대학교 축구부

“작지만 강한 대학! 실용인재 육성의 요람 남부대학교 축구부의 전국 8강을 위하여!”

남부대학교 축구부가 새봄을 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전을 앞두고 전국 8강진출의 각오를 다졌다.

오는 2020년 4년제 대학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헌신을 다하고 있는 남부대학교의 더불어 신생 축구부지만 전국을 호령하겠다는 당찬 포부다.

남부대학교 축구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선수 13명으로 뜻을 올렸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1년 3월 35명의 선수단을 확보해 틀

을 갖췄고, U리그 권역별 7위에 오르기도 했다. 8월에는 추계대학연맹전 예선 3전 전승으로 예선 1위를 기록한 후 본선에서 강호 호남대학교에 승부차기 끝에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는 등 신생팀 답지 않은 실력을 뽐냈다. 특히 남부대학교 축구부는 수업을 다 받고 운동을 한다. 양철원 감독은 인성을 갖추고 성실한 선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교육방침을 선수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선수들도 수업을 한 후 운동하는 것이 힘들지만 프로팀과 대학강호로 일컫는 팀들로부터 지명을 받지 못한 좌절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있다.

남부대학교 축구부는 신생팀다운 패기 넘치고, 스피드와 조직력의 축구를 구사한

다. 양 감독과 더불어 김성욱 수석코치, 김호일 코치가 버티고 있는 코치진은 오는 2014년 전국제패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1·2학년 위주로 꾸민 팀이지만 2년 후에는 기량과 호흡이 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장을 맡고 있는 김성민(4년·태권도 경호학과)의 동생인 김성현(2년)은 출중한 공격수로서 내년에 프로팀들로부터 낙점을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팀 분위기 메이커인 장규현(2년)과 신일생 김태환(1년)은 각각 수비수와 공격수로서 대목마크를 달 수 있는 후보로 꼽힌다.

이들과 함께 뛰는 김동복 입학 처장은 “작지만 강한 대학 취입이 보장된 대학”을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남부대학교 축구부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해범기자 choi@kwangju.co.kr

알릴 계획이고 윤상진 학생처장도 이들 선수들과 함께 뛰며 전국 8강 목표에 힘을 보탤 생각이다. 축구부 창단에 산파역할을 한 최승식 축

구부 부장교수는 “이번 3·1절 마라톤대회 출전을 통해 시·도민들에게 우리팀을 알리고 선수간의 팀워크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부장교

수라는 직함에 어울리게 선수들에게 뒤쳐지지 않도록 선수들과 함께 러닝을 통해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FC 선수단이 14일 상하이 선화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귀국 생각에 설레지만 전용 연습장 없어 걱정”

상하이 선화구장서 전문 광주 FC 선수들 표정

광주 FC의 해외 전지훈련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최만의 감독과 선수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광주의 전지훈련이 오는 18일 마무리된다. 선수단은 귀국 후 19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20일 밤 재출발한다. 24일에는 목포시청과의 연습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곧바로 훈련 일정이 재개되지만 선수들은 귀국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광주 선수단은 20여일 간의 전지훈련 기간 단 한 차례 휴식을 취하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고된 훈련 스케줄에 심신이 지친 상태다.

현지 통신망 사정이 좋지 않아 스마트폰을 꺼두는 지경이 되며 지내고 있는 선

수단은 숙소 근처에 마땅한 놀이거리도 없어 숙소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먹는 것이 제일 힘들다. 김치가 특별 반찬으로 준비됐지만 아침·점심·저녁 비슷한 식단이다. 숙소 음식에 질린 선수단은 지난 10일 박병모 단장이 시내 한국식당에서 마련한 삼겹살 파티에서 삼겹살 120분을 먹어치웠다. 후식으로 김치찌개에 공기까지 싹싹 말아먹으며 위력을 발휘했다. 가족들 만날 생각에 들뜬 선수들과 달리 최만의 감독은 귀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쌓여간다.

전용 연습장이 없어서 훈련 스케줄을 짜느라 고민이다. 광주시체육회와 협의해 월드컵 주경기장과 보조구장 훈련을 조율해야 하는데 그동안 훈련을 해왔

던 첨단 금강기업 사내 축구장에 잔디 공사가 이뤄져서 당분간 사용이 어렵다.

14일 상하이 선화구장에서 진행된 훈련에서도 최 감독은 “최고의 구장에서 선수들이 마음껏 훈련을 했는데 귀국 이후가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광주는 중국프로축구팀 갑(1부)리그인 상하이 선화의 전용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상하이 선화는 첼시의 니콜라스 아벨카와 디디에 드록바 영입으로 전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을 모은 팀.

상하이 선화 트레이닝센터는 1개의 경기장과 천연잔디 구장 9면, 인조잔디 구장 1면 등 11개의 축구장을 갖추고 있고, 클럽 하우스까지 들어서 있어 광주선수단에 게는 꿈의 장소다. 귀한 손님을 맞이 위한 클럽하우스 리모넬링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네가 제일 잘 나가 부러워”

지난해 최고 한해 보낸 광주FC 김동섭-이승기 서로 칭찬

중국 상하이 = 김여울 기자

김 “신인왕도 받고 A매치 데뷔전 치르고...”

이 “올림픽 대표팀서 꾸준히 활약하면서...”

“네가 제일 잘 나가!”

광주 FC를 대표하는 공격수 김동섭과 미드필더 이승기는 지난 시즌 각각 올림피아드 대표팀과 월드컵대표팀의 부름을 받으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축구인생 최고의 한해를 보냈지만 두 선수는 서로가 부럽다.

김동섭은 “(신인왕도 받고) 자기가 더 잘 나가면서 승기 향이 나보고 자주 잘나간다고 한다”는 입장이고, 이승기는 “나는 깜짝 스타였고 동섭이는 꾸준히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가 제일 잘 나가”를 외치고 있는 두 사람.

김동섭은 지난 시즌 7골2도움을 기록하면서 광주의 공격수로서 손색없는 활약을 했다. 8골3도움을 기록한 이승기와 신인왕을 놓고 집안 싸움도 벌일 수 있었지만 일본 프로무대에서 뛰었던 경력때문에 후보에서 제외됐다.

김동섭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후보 제외 소식을 들었다. 생애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인데 못 받는다”고 하니 담연히 아쉬웠다”며 신인왕 이승기에 대한 부러운 마음을 전했다.

또 축구선수에게 가장 큰 영광인 국가대표로 선발돼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는 것도 동섭 김동섭이 부러워 하는 형 이승기의 모



김동섭

이승기

습이다. 김동섭이 부러워하는 이승기는 오히려 김동섭이 부럽다.

이승기는 “지난 시즌 깜짝 스타로 대표팀에 간 것이다. 동섭이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대표팀에서 활약을 해왔다. 계속해서 대표팀으로 나가는 것이 부럽다”고 말했다.

2009년 U-20 청소년월드컵 8강 진출 주역인 김동섭은 ‘홍명보 카드’로 계속해서 대표팀 무대에서 뛰었다. 반면 이승기는 지난해 조광래 감독의 선택을 받으며 A매치 무대에 섰지만 최근 꾸러진 최강희호는 승선하지 못했다.

신인왕을 놓고는 미안함이 남는다. 이승기는 “신인왕 받을 수 있게 동섭이에게 포인트 몇 개만 주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

었는데. 동섭이가 말을 안 해서 (속마음을) 몰랐다”고 미안한 마음을 보였다.

서로를 부러워 하는 사이지만 두 사람의 목표는 같다. “지난해보다 나은 2012년, 최후에 웃는 자가 되자.”

14일 올림픽대표팀에 재합류한 김동섭은 “대표팀 일정때문에 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아쉽지만 컨디션은 좋다. 진짜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게 중요하다.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골 육성을 부러웠다”며 “땀이 있다. 한방이 있다. 찬스가 오면 해줄 것 같은 ‘해결사’같은 선수가 되었다”고 올 시즌 각오를 언급했다.

이승기는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못보여줬는데 좋은 모습 보이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가 훈련에만 집중하겠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한다는 생각으로만 훈련을 했는데 지금은 내 플레이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팀이 잘 되게 하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해 좋았기 때문에 부담도 되지만 공격포인트를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루마쎄팅, 3M코팅, 모비스쎄팅,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극안테나,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맥과이어스공택, 코팅, 실내용리너, 하부언더코팅,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비덕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만도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내비게이션, 한국어이어, 글로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이차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루마쎄팅 | 3M쎄팅 | 모비스쎄팅

앞유리 쎄팅을 하면 열차단 · 자외선 차단 끝

루마스타급 50% 특별할인 행사

- ▶ 전면 170,000원 → 85,000원
- ▶ 후측면 230,000원 → 145,000원

— 자동차 앞유리 쎄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형 펌크 무상점검
- 타이어압, 뒤 순환교체 평형 무료점검
- 브러쉬워셔액 무료증정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